

## 중심에 접근하기

### Approaching the Center

이필훈 / 태두건축사사무소

by Lee Phil-Hoon

건축을 해서 그것으로 먹고 산 지 20년이 넘었다.

초등학교 시절 농담처럼 떠들던, 정답 없는 많은 질문들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연결된 본질적 질문들인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질문들에 답을 얻기 위해 애썼고, 제일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일에 정진함으로써 그 답에 접근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제일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건축에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그 답을 찾는 노력은 지적인 호기심으로 변질되고, 그 호기심은 건축 외에 여러 분야를 공부하게 만들고, 결국은 종교에 대한 공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시 건축으로 돌아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배움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으며, 많은 것들은 배움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이다.

배움으로 얻는 것들은 외부적인 것들, 대상적인 것들이다. 과학과 종교의 차이 - 과학은 주관적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외부에 남아 있으면서 지켜보는 것이다. 그것은 진리를 향하여 대상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다. 종교는 주관적으로 접근한다. 존재 깊숙이 들어갈 때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혹은 자연으로부터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는 건축을 잘하기 위해 건축역사를 배우고, 건축이론을 배우며, 연관된 학문들을 끊임없이 공부한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건물을 설계한다.

과학적인 접근이다. 건축 설계는 늘 이런 공부들의 부산물로 이해된다. 그래서 설계된 건물엔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의 잔치가 뒤따른다.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건물일수록 더욱 복잡한 이야기와 현학적 참고자료들이 나열

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각종 서적에서 끌어 모은 지적 파편의 자욱한 먼지들과 어수선했음이 느껴지고, 그 이야기들이 설계된 집과는 별 관계가 없음을 깨닫는 데는 특별한 지적 훈련 없이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혹시 건축을 이해하는데 이런 식의 과학적 접근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와 명상은 관찰하거나 배움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알 수 있다. 사랑 역시 직접 해보는 것 외에는 그 감정의 변화와 깊이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

이제 나이가 들어 어느덧 건축을 가르치게 되어 학생들에게 묻는다.

‘건축은 몸에 가까운가, 머리에 가까운가?’

‘짓는 일이 먼저 시작되었을까, 건축이론을 세우는 일이 먼저 시작되었을까?’

과학 혹은 예술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삶이다.

건축은 이런 삶을 담은 그릇이다.

그런데 많은 건축가는 삶을 외면하고 이론과 예술에 매달린다.

유명한 건축가일수록 관념 속에 살고, 논리 속에서 살며, 언어로 포장된 삶 속에서 살기 쉽다. 진짜 장미는 잊어버리고 오직 ‘장미’라는 단어만을 알고 있고, 진짜 ‘삶’을 잊어버리고 오직 ‘삶’이라는 단어만을 되뇌이기 쉽다. 그러나 머리는 단편적이다. 머리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킨다. 물론 지적인 습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존재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지성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벽을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삶은 머리보다 가슴으로 알 수 있다. 고정관념으로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공부를 통해 건축관을 세운다. 그리고 그 건축관으로 설계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건축관은 개인의 고정 관념이다. 고정 관념은 일종의 편견이다.

편견은 삶을 자기 식으로 왜곡시킨다. 그 왜곡은 늘 강요, 그리고 억지와 함께 한다.

건축가는 건축을 통해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건축으로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그러는 동안 건축은 그런 건축가의 자의식으로 희생되며, 미술작품과 같은 전시품으로 전락한다. 그

러나 실은 그 자의식조차 여기저기서 빌어 온 연관 없는 지식들의 변종이기 쉽다.

건축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에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엔 너무 중요하고 크다.

많은 건축가는 건축이 대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한편으로 건축의 형이하학적 측면에 열등감을 느껴 끊임없이 현학적이 되기 위해 애쓰며, 이미 사회에서 학문적으로 평가받는 이론들과 그 이론을 만든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 건축과 관련 없는 많은 난해한 이야기들이 건축내부로 스며들어오고, 건축가들은 자신들의 영역적 고유성을 상실한 채 건축을 다른 학문의 해석학 또는 응용과학 정도로 추락시킨다. 이런 이론들을 통해 서로 유사해지고, 그런 상호교잡의 현상 속에서 일반의 삶과 유리된 상징물들을 만들며, 이를 통해 안전함과 우월감을 느낀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집들은 특이한 한편으로 너무 비싸고, 덥고 추우며 일사량이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어둡고, 비가 새고 환기가 안 되며 끊임없는 보수관리를 요구한다.

기념물은 남았는데 삶은 외면되었고, 관념은 드러났는데 본질은 지워졌다.

유명한 건축가가 아닌, 좋은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의 중심에 다가서야 함을 깨닫는다. 거기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지식이 아닌 사람의 생활이 있으며, 과장된 복잡함이 아닌 진실한 단순함이 있고, 자아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삶을 담은 건축이 있다. 건축가에게는 고양된 자신의 주장을 만들어가는 공부보다 오히려 주변의 상황을 편견 없이 읽고 비취주는 거울과 같은 마음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것은 깨닫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지 않음이다. ㉮